

TV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such as 'KBS 뉴스', '생방송 오늘', 'MBC 뉴스투데이', 'KBC 뉴스지금', and 'EBS 최고의 교사(재)'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시크릿 가든” 후 인기 실감해요

3년 공백개고 연기 도전한 미스코리아 김사랑

“미스코리아에 당선됐을 때 받았던 관심을 지금 다시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반응의 강도가 뜨겁네요.”

2000년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김사랑(33)이 10년 만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고 있다. 지난달 막을 내린 SBS TV ‘시크릿 가든’에서 한류스타 오스카(윤상현 분)와 곡절 많은 애절한 사랑을 펼친 윤슬을 연기한 덕분이다.

김사랑은 “시크릿 가든” 덕에 CF를 벌써 3개나 계약했고 요즘에도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사실 ‘시크릿 가든’ 초반만 해도 윤슬은 ‘비호감 캐릭터’의 전형이었다. “김은숙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역할이 좋아야 이렇게 뜨네요. 처음에 대본

을 보자마자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해 매달렸습니다. 윤슬은 너무 멋진 아이예요. 드라마가 조금만 더 길어도 더 보여드릴게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약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오버, 코믹연기를 펼치다가 예상한 사람 연기로 돌아서잖아요. 게다가 의상에서도 상류층의 호사는 다 누렸어요. 수없이 좋은 옷을 갈아입으며 윈 없이 꾸며봤습니다.(웃음) 정말 최상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역할이 좋았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김사랑은 2008년 초 방송된 SBS ‘도쿄, 여우비’ 이후 작품활동을 하지 않았다. “시크릿 가든”을 만나기까지 3년 정도 쉬었습니다. 문득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 정말 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 출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 없었던 게 아니라



허려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초조함은 없었어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예계라는 좁은 율타리를 벗어나 교회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만들었고 많은 일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세상에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출뉴스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 including 'EBS탈스런(최경석의 한국현대사)', '박주환의 세계사', and '김정현의 세계지리'.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 including '주목관리사 시험대비강좌', '극한직업', and 'SF 시트콤(미래를 보는 소년)'.

케이블 가이드

Table listing cable channel guides for various networks: 챔프, CGV, KBS DRAMA, 온스타일, and MBC 게임, with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TV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such as 'KBS 뉴스', '연예나 친춘', 'MBC 뉴스', 'SBS 뉴스', and 'EBS Talk N Issue'.

“주몽” 소서노 이미지 벗어날래요

한혜진, KBS 2TV ‘가시나무새’ 서정은 역할 맡아

여전히 그는 많은 이들에게 ‘소서노’로 기억되고, 불린다.

MBC TV ‘주몽’은 2007년 3월 막을 내렸지만 한혜진(30)은 지난 4년간 ‘소서노’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 드라마 ‘배부아’와 ‘제왕의 왕’ ‘용서는 없다’에 출연했지만 시청률 51.9% ‘용서는 없다’에 출연했지만 시청률 51.9%

로 막을 내린 ‘주몽’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는 확실한 패를 잡은 느낌이다. ‘프레지던트’ 후속으로 다음 달 2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수목극 ‘가시나무새’(극본 이선화, 연출 김충장)가 그것이다.

그는 “이 작품이 내 또다른 대표작이 됐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며 “주몽”의 소서노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2011년인데 아직도 소서

노로 불리는 것은 좀 민망하다”며 웃었다. “가시나무새”는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자와 그가 버린 것들을 사랑으로 감싸안는 또다른 여자의 이야기다. 그중 한혜진은 후자인 강인하고 착한 여인 서정은 역할을 맡았다.

그는 어려운 역할이라고 하지만 ‘가시나무새’는 설정만 보면 시청자의 이해와 몰입이 쉬운 전형적인 흥속극이다. 이에 대해 한혜진은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대본을 보니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풀라도 그 속에 복잡한 심리가 녹아있다. 그 심리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극중에서 배우 역할을 맡은 것도 그에게는 흥미로운 일이다.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제가 고2 때부터 오디션에 도전했



데 당시에는 재능도 없으면서 무조건 의욕만 앞서서 덤뎠기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족족 떨어졌어요.(웃음) 그때 떨어져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들이 이번엔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도 서정은의 배우로서의 성장과정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 재미있을 거예요.” /연출뉴스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 including '기본과 특별함 <조연의 한국사>', '조연의 세계사', and '박정현의 세계지리'.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 including '2011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극한직업', and '3학년1반 영어 Go For It!'.

케이블 가이드

Table listing cable channel guides for various networks: 투니버스, OCN, Mnet, 스토리온, and 코미디TV, with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